

# ‘장미 대선’ 유권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 호남 유권자, 충청보다 14만명 적어 20~30대 젊은층 줄고 고령층 늘어

#### 19대 대선 유권자 분석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5월 9일 ‘장미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젊은 층 유권자가 줄어들고, 고령층 유권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번 대선에선 충청권 유권자 수가 호남 유권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선거에서 ‘세대 간 대결’ 양상이 자주 나타나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이번 대선 판도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전국의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4239만228명 중 24.14%인 1023만 595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한 것은 역대 대선 중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8대 대선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중이 3.34%포인트 증가해 이제 유권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거주불명자가 많아 통계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100세 이상 인구(1만7천701명)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0대 인구 비중도 지난 대선 때 19.2%에서 19.9%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20대 인구는 675만5천312명으로, 전체 19세 이상 인구 중 비율이 15.9%다. 4년여 전 16.4%에서 소폭 하락했다.

지난 대선 때 전체 유권자 20.1%를 차지했던 30대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말 현재 비중이 17.8%(751만9천 950명)로 2.3%포인트 급감했다. 이제 각 투표권을 갖게 되는 19세는 1.6%로 지난 대선 당시(1.7%)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대선에 21.8%이던 40대 유권자도 20.8%(879만3천768명)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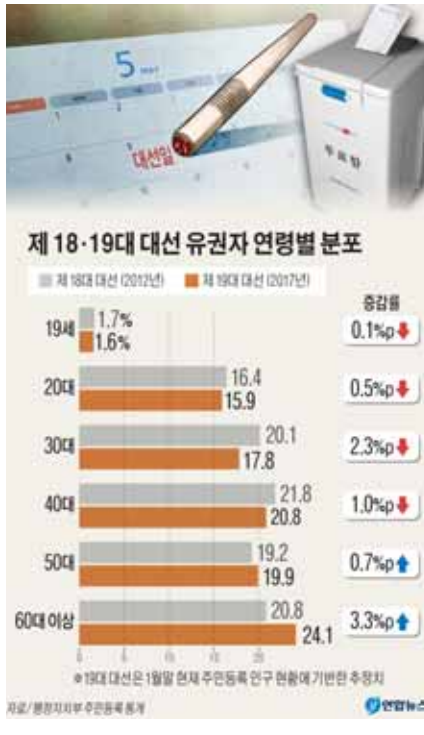
다만 여전히 전체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9세 이상 인구가 전체 24.1%로 가장 많고 서울(19.7%), 부산(7.0%), 경남(6.5%), 인천(5.7%), 경북(5.3%), 대구(4.8%), 충남(4.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118만6083명)·전남(159만 6270명)·전북(154만9708명) 19세 이상 유권자 수는 433만2061명으로, 대전(123만 8676명)·충남(172만8460명)·충북(131만 9943명)·세종(18만5590명) 유권자 447만 2669명보다 14만608명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선거인 명부는 4월 11~15일 작성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거 12일 전인 4월 27일 확정된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가 1년 이상 수형인고 선거사범 등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거인 명부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민주 제외한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초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선 20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이 가능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 지난 17일 공개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은 지난 17일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 개헌안 부칙은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3년 임기를 마친 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인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이 향후 대선에서 계속 당선되면 19대 3년, 20대 4년, 21대 4년, 22대 11년 동안 재임 가능하다.

3당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국회의원 과반인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3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박지원 대표와 대선주자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또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1당인 민주당이 3당의 개헌 합의를 대선판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안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3당의 개헌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구축함 배리호 목포항 입항

미 구축함 배리(Barry)호가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목포 신항에 입항해 있다. 배리호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하면서 동시에 항공기 등을 상대로 한 대공 전투까지 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8950t 크기에 32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 제공>

## 2017 대선 브리핑

### 대선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509억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09억 9천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 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 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번 ‘5·9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 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4회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조정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가 1회이다. 조정대상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한다. 조정대상 후보자토론회는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의 순서로 열린다. 모두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하며 이번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 광주시 친환경차 선도도시 질주

### 윤장현 시장, 제주 국제전기차엑스포서 정책 발표

#### “한국 첫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광주시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에서 열린 ‘제4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 정책을 대내외에 소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의 위상을 적극 알렸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국가 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사업도 올해 일제히 추진해 명실상부한 친환경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제주에서 개막한 엑스포에서 13개국 전기차 도시의 중앙 및 지방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EV CEO 서밋’에서 윤장현 시장이 직접 시의 전기차 정책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환경오염 문

제 해결과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사람중심의 친환경차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가 한국 최초 자동차 생산 도시로써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뛰어나고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도 중국 전기차백인회포럼에 초청될 만큼 광주의 친환경차 정책이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과 연계한 미래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등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의 정책 비전도 발표해 호응을 받았다. 완성차 9개사와 관련 업체 등 200여 개사 참여하는 엑스포에는 관람객 10만 명이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여 광주의 친환경차 선도도시 위상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광·전자 특화기반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집중해 육성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영광 대마산단에 소형전기차 1만대 생산 공장 건립

#### 전남도-디와이 투자협약

영광 대마산단단지엔 연간 1만대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립을 위한 e-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과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영광군은 공장 건립 시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전남이 국내의 소형 전기차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19일 “1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4회 제주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작사인 인천 소재 디와이(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디와이(주) 관계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김강현 영광군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디와이(주)는 영광 대마산단단지 4만9587㎡ 부지에 소형 전기차 연간 1만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건립하는 등 영광군의 그린 시티 구축을 위한 e-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과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영광군은 공장 건립 시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전남이 국내의 소형 전기차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와이(주)는 1978년 창립해 지난해 매출 6424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자동차 세차기, 골프카, 굴삭기 실린더, 4륜 모빌리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계열사 4곳을 두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사임

중앙일보와 JTBC의 홍석현 회장이 사임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고별사에서 “이제 저는 23년 간 몸담아 온 회사를 떠납니다”라며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 회장은 “최근 몇 개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오랜 끝이 끝이 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일자리, 사회통합,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대한

답을 찾고 함께 풀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작업들은 명망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재단과 포럼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충지를 모아 나온 해법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미디어그룹에서는 현재 홍 회장의 아들인 홍정도 사장이 2015년 12월부터 중앙일보와 JTBC의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증-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